

## 11장/성만찬의 본질을 회복하라(고전11장)

오늘의 포인트)

1.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성만찬의 문제를 다룬 이유를 알아본다.
2. 성만찬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오늘날에 성만찬 예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 I. 고린도교회의 내적 문제/ 성만찬 문제

1. 고린도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

- 1)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선언한다.(고전 11:20)

성령의 임재 후 교회들의 아름다운 전통은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

주의 만찬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었다.

#### ① 애찬(Love feast)

성도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모여 공동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 ② 성만찬(Eucharist)이다.

식사 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행하였다.

2)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전11:17)

- ① 고린도교회에 행하는 주의 만찬은 칭찬할 수 없다고 함.
- ② 고린도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봄.

2. 고린도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이 해로운 것이 될까?

분쟁과 당파 때문이다.

고린도교회는 당파로 인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있었다.(고전11:18)

분쟁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것이고 결국 모임 때마다 사람들을 자신들이 맞는 무리끼리 모였다. 결국 4개의 당파는 하나의 세력이 되었고,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것이 주의 만찬 시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당파끼리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졌다. 거룩한 식사의 자리가 성도들의 아픔의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다.

### II.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1. 성찬에 관련된 만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선언한다.(고전11:23)

2.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고전11:24-25)

기념하다는 것은 ‘명심하다’, ‘회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을 뜻한다.

2.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원했을까?

1)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한 3가지

① 세족식

② 성만찬

③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

2)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을까?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밤에 행하였다. 이 말은 제자들과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었던 것이다.

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은 주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이다.

본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현존을 강조한다. 현존은 “지금 이 자리에”라는 의미이다. 어디에 현존하시는가?

첫째, 말씀으로서 존재하신다.

둘째, 성례로서 존재하신다.

셋째, 공동체로서 존재하신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현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 선포를 하게 된다. 이때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알았다. 그러나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냥 유월절 식사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로 생각을 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아셨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만나면 불안해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다. 5병2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 것을 아셨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은 절대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게 되면 이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은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한다. 떡을 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선 “이것은 내 몸이다.”하셨고 다시 잔을 드시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겠는가? 몰랐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당시에 엄청난 위력적이 고백이었다.

당시 교회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았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 이때 교회가 모이면 성만찬을 나눈다. 단순히 교제의 자리를 넘어섰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였고, 이 성만찬을 통해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힘 있게 당시 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자리였다. 그런데 먹고 즐기는 자리가 되어 버린 것이 성만찬이었다.

② 성만찬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임을 기억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일까? 아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이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것이 성만찬의 자리였다.

그들은 모여서 성찬을 나눌 때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 즉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식사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현상 속에 있을 때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부자들은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결국 가난한 자들은 굶고, 부자들은 잘 먹어... 교회 안에)

③ 이 고백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고전11:26)

인간은 연약하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부딪쳐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성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나와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한다.

오늘의 적용점)

1. 성만찬이 형식적 예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2. 혼자 힘으론 이 세상을 걸을 수 없다. 오늘 결단해도 오래 견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걷는 공동체되기를 힘쓰야 한다.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침반 바이블  
BIBLE